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앙 위 원 당 중 회 刀 로 동 선

제 2 4 6 9 5 호 】 주체 1 0 3 (2 0 1 4 ) 년 1 0 월 9 일 (목요일) 제282호 【루계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은동 정

궄 보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팔레스 티나국가 대통령 마흐무드 아빠스가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이스마

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 전권대사가 8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단 이 亚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바레스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8일 해당 부문 일군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

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를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팔 었다. 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와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

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로작연구토론회 도이췰란드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 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 나게 완성해나가자》에 대한 연구 토론회가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9월 27일 도이췰란드 프 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진행되

연구소조책임자 마르쿠스 피들러 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다 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 업적을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선대수령들 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전위부대로 더욱 튼튼히 다져놓으시 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 였다.

【조선중앙통신】

#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은 가장

행 사 진 했 리 나 라 에 서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에서는 집회, 도서 및 사진전 시회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연회 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좌담회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

되였다. 도서 및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스위스조선위원회, 스 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인도네시아 드위 미뜨라 뻐르까싸회사, 에티오피 아 금속 및 기계총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하신 조선로동당 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 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 선로동당은 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 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늘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 강국의 위용을 떨치면서 경제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휘황 이 채택되였다. 한 등대이다.

인도네시아 드위 미뜨라 뻐르까싸 회사 사장은 《백승을 떨치는 조선로 앙골라에서는 경축모임, 좌담회가, 동당》이라는 제목의 강연회에서 다 기네에서는 강연회, 영화감상회가 9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독창적인 당창건 방침을 제시하시고 해방후 지체없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으며 그 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담은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과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1964년 6월 19일 당중앙 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 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 움직이는 정치조직으로 건설하 시였다.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그이의 당령도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것 이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 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선로동당은 가장 존엄높은 불패의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에티오피아 금속 및 기계총회사 책임설계가는 조선로동당처럼 강위 력한 당은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격찬 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며 승리의 한길만 을 걸어왔다.

선대수령들의 혁명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을 맞이하게 된다. 령도가 있는 한 그들은 반드시 사회 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 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또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영광 찬란한 로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

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

절은 당의 지위와 령도적역할이 약 화되면 결국 나라도 망쳐먹게 된다

조선인민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속에서도 자기 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여나가고있는 비결은 수령의 두리에 통일단결된 조선로동당의 불 패의 위력에 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 민이 부럽다.

앙골라 엠쁘로에총회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곧 조선로동당창건 69돐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광범 한 근로인민대중을 망라한 조선로동 당을 창건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 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투쟁을 현명 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해

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 전시키시고 선군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 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 선인민은 백승만을 떨칠것이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 은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 앙골라대통령부 안전관방국 장령 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 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 인민 중시의 정치를 펼치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 당이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서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는것은 우 연한것이 아니다.

기네공보성 기술국 과장은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감 상하고 조선인민의 행복한 모습에 국제사회계가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의 위력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었다, 조선은 참으로 위대한 강국이다고 격찬하였다.

기네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 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강성국가건설의 자랑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부문의 일군 들과 근로자들이 9월 화력탄수 송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10월에 들어와 성과를 계속 확 대하고있다.지난해 9월 6일부 터 10월 7일까지의 기간에 비해 38만 7 300여t의 화력탄을 더 수송한 실적은 당의 전투적호소 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고 두줄 기 궤도우에서 날에날마다 증송 의 기적소리를 우렁차게 울려가 고있는 수송전사들의 애국적헌 신성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픗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 한 교통운수분제를 결정적으 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분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 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철도성 일군들은 전력,석탄 공업부문과 피줄처럼 이어진 철 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야 나라 의 전력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 결할수 있다는 비상한 자각을 새겨안고 이달에도 맡겨진 화력 탄수송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빈틈없는 작전을 펼치고있 다. 책임일군들부터가 당의 사 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는 조건타발이란 있을수 없다는 결 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철도운수부문에서 화력탄수송성과 계속 확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8만 7 300여t의 화력탄 더 수송 각지 화력발전소들과 탄광주변 의 철도역들에 내려가 기동적인 석탄수송지휘로 진격의 돌파구

성의 일군들은 화력탄수송에 기판차,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계속 세우는 한편 기판차,화차예비를 충분 히 조성함으로써 현행계획뿐아 니라 전망계획도 물질기술적으 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립체 전을 전개하고있다. 이와 함께 운행중에 있는 기관차들의 기술 상태를 사령원들이 제때에 알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기 관차대들에도 즉시 통보하는 보 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우고

를 열어나가고있다.

실천에 구현해나가고있다. 각지 철도국과 철도분국, 기 관차대와 객화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수송하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

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 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 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대한 화력탄수송을 맡은 평양철 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탄 광들의 저탄장을 발전소마다에 통채로 옮겨놓을 각오를 안고 증 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 다. 역, 대, 소를 비롯한 아래단 위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현장에 서 걸린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 어나가는것과 함께 화력탄수송 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합 리적인 방도들을 적극 찾아내는 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상차시 간을 극력 줄이고 석탄을 실은

렬차들을 동력기지들로 신속히 떠나보내는데 모를 박고있다. 신성천기판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화력탄수송을 위 한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견 인정량보다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맡겨 진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

서평양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기관차의 실동률 과 화차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 여 화력탄집중수송의 숨결을 고 조시키고있다. 이들은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이는것이 곧 중요물 동수송실적을 끌어올리는 중요 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기 판차운영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 원하여 기관차수리전투도 함께 내밀고있다. 이들은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기관차

수리에 적극 받아들여 실동기대 수를 늘이고 모든 기관사들이 맡은 구간들의 철길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운행조법을 확 립하도록 하고있다.

북창철도분국의 수송전사들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 으키며 날에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들은 화력탄수 송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 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한량의 화 차라도 더 끌기 위해 적극 노력 하고있다. 특히 북창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은 기관차정비와 관 리를 잘하면서 철길의 기술상태 에 맞는 앞선 운전조작법을 적 극 받아들여 증송성과를 련일 확 대하고있다. 역, 대, 소들에 나간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분국의 일 군들은 역별, 구간별화차배치상 태와 류동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기 동성있게 해나가면서 전투원들

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개천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 전사들도 불꽃튀는 화력탄수송 으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 고있다. 국의 당, 행정일군들은 중요화물역들에 내려가 수송전 사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 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한 편 기동적인 화차이동수리와 운 행중 검사에 계속 큰 힘을 넣도 록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 다. 이와 함께 기관차와 화차들

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하고있으며 기관사들이 기공 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운행중

평양, 대건, 신성천, 북창, 신 안주, 개천객화차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 기관차점검을 실정에 맞게 진행 구동원하여 화차수리를 제때에 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세움으로써 성적인 화력탄

궤도우에 울려퍼지는 결사관철의 기적소리

고있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일군 들, 로동계급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선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 전사들의 혁명적열의와 과감한 실천에 의해 화력탄수송실적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수송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

본사기자 김충성



증송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신성천철도분국에서-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선 득장지구탄광

# 석란증산을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

득 장 지 구 탄 광 련 합 기 업 소 에 서

들이 매일 수백t의 석탄을 증산 하여 9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 러일으키고있다. 게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계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즉시 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 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 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굴진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매장량이 많 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발들을 타고앉아 석탄생산을 획기적으 로 늘여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

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및 행정참모 부,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일군 들과 종업원들모두가 당의 사상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탄부 이 떨쳐나 돌격전의 기수,위훈 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불

> 일제히 갱막장에 진입한 련합기 업소의 일군들은 막장에 생산지 휘부를 정하고 석탄생산으로부 터 설비, 자재, 부속품보장에 이 르기까지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전투지휘를 책임적으로 진 행하여 캐낸 석탄이 제때에 화

력발전소들에 가닿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일군들은 탄 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군군 인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 신하게 진행하여 대중의 정신력 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석탄생산투쟁의 앞장에는 련 합기업소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득장청년탄광 일군들 판철전, 당정책용위전에 한결같 과 탄부들이 서있다.

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한데 그치 지 않고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모든 탄부들의 생 산의욕을 부쩍 높여주어 하루 최 고 4 0 0t의 석탄을 더 캐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1갱, 2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 지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 아들이고 운반능력을 훨씬 높여 9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

탄광의 일군들은 중대별사회

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룡산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은 당의 호소를 접한 시각부터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석탄공업부문을 추켜 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탄부 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고 이 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어 탄광 적인 일석탄생산량을 계속 늘여 나가고있다. 6갱, 2갱의 일군

고 석탄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작업조직과 지휘 를 짜고들고 전차, 탄차들의 만 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계획보다

들은 탄부들의 생

산열의가 높아지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명학탄광에서도 서로 돕고 이 끄는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탄부들의 생산

열의가 높아지는 속에 석탄생산 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있다. 2갱, 3갱을 비롯한 모든 갱들 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 게 벌어지는 속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갱도보수, 운반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 행하는 등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득장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 과 로동자들도 탄차바퀴, 각종 소공구 등을 자체의 힘으로 생 산하여 탄광들에 넉넉히 보내줌 으로써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크 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백두산선군청년 발전소건설에 참 가한 청년돌격대 원들이 사회주의 경쟁을 벌리며 맡

위 대 한

니다. 》

은 대상공사장마다에서 련일 혁 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슨 일에서나 경쟁이 벌어져야 남보다 앞서겠다 는 열의를 가지고 분발하게 되며 그 과정에 기적과 혁 일어나고 발전하게 됩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정치 부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이 힘있 게 벌어지는데 맞게 선전선동력 량과 수단을 전투현장들에 집중 시켜 청년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 다. 이와 함께 전투장들을 끓게 하는 방송선전에 힘을 넣어 청 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사 회주의경쟁열의를 더욱 고조시 키고있다.

# 사회주의경쟁이 백 두 산선 군청 년 발전 소 건 설 장에 서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1호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공사속도 장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모든

발전소언제타입을 비롯하여 경 쟁기간에 수행해야 할 단위별전 투목표를 명백히 제시하고 경쟁

참가단위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 지는 속에 전투장마다에서는 날 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 고있다.

평안북도, 함경북도려단의 청 년돌격대원들은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깐지게 하고 예비부 속품확보사업을 짜고들어 압축 기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있 다. 그리하여 2호발전소물길굴 확장 및 피복공사에서 련일 혁

신을 일으키고있다. 3호발전소물길굴도갱공사를 맡은 량강도려단 청년돌격대원 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판을 를 부쩍 높이고있다.

함경남도, 평양시, 황해남도, 황해북도려단과 성, 중앙기관대 대, 남포시대대의 청년돌격대원 들은 3호발전소무넘이언제공 사에 참가하여 서로 돕고 이끄 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 며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혁신의 불길은 평안남도, 자 강도려단에서도 세차게 타오 르고있다. 려단의 청년돌격대 원들은 사회주의경쟁을 벌리 며 매일 맡겨진 대상공사과제 수행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

8. 2 8청년돌격대관리국 운 수기동려단 1대대에서는 중량 급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수리점 검을 깐지게 하고 수송조직과 지 휘를 짜고들어 세멘트와 골재를

고있다.

비롯한 물동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하 참모부에서는

부속품과 자재보 려단, 대대들에서 가치있는 기 술혁신안과 앞선 공법들을 적 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도록 하고있다. 참모부일 군들은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 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을 경 쟁요강에 포함시켜 모든 단위 들에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

장하게 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에 적극 참가하 고있는 현장련합지휘부직속 백 암수송대, 길주수송대, 혜산수 송대에서는 해당 철도분국들과 의 긴밀한 련계밑에 화차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고 회귀일수 를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 다. 그리하여 공사에 필요한 설 비, 자재, 후방물자들을 제때에 건설현장으로 실어보내는데 크 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 백전백승의 기치 주체의 당기따라 광명한 미래에로

가을바람에 푸른 잎 설레이는 나무들이며 융단마냥 펼쳐진 풀잎들 마저 근 7 0년전의 잊을수 없는 나 날들을 속삭이는듯싶어 누구나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뜻깊은 10월, 우리 당창건의 력 사의 나날을 후세에도 길이 전해주 는 당창건사적판을 찾는 사람들의 물 결은 끝이 없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7만~8만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 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외국인들 이 이곳을 찾는데 10월이면 참판 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올해에 도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인민군부 대들과 성, 중앙기판, 교육기판들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수많은 참관자들 이 사적관을 찾았다.

이곳을 떠나 어떻게 영광찬란한 우리 당의 빛나는 력사에 대하여 말 할수 있겠는가. 해방후 당을 창건하 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이 해방산기슭을 떠나서 백전백승하 는 조선로동당의 영광과 존엄에 대 하여, 이 땅에 펼쳐진 무수한 창조물 들과 나날이 꽃펴나는 인민의 만복 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밀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 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당이다.》

당창건위업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에 따라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공고발전과 전도, 혁명의 성패여부가 좌우된다.

항일혁명투쟁의 피어린 나날에 벌써 혁명적당창건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 업에 착수하시였다.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각지로 파견하시여 지방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 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 투사들은 백두산에서 매고 온 신들메를 풀 사이도 없이 새 전 구로 속속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한 결같이 자기네가 차지할 파견지를 하나의 작전지역처럼 여기였습니 다. 우리의 조국개선은 개선이라기 보다 혁명의 새 장을 개척하기 위 한 전략적이동과 같은것이였다고

# 해방산기슭은 오늘도 불멸의 그 업적 전한다 10월의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을 위해 한뉘 휴식이라는것을 모르고 살아온 투사들, 초연에 그슬 린 군복도 갈아입지 못한 항일투사들 을 또다시 새로운 투쟁무대로 떠나보 내실 때 우리 수령님의 심장속에 차 넘친것은 하루빨리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고 부강번영하는 새 나라 를 일떠세우시려는 굳센 의지였다.

3 천만의 열광적인 환호도 마다하시고 조용히 평양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김일성빨찌산부대 정치위원》 이라고 소개하시며 국내혁명가들을 만나시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알 려주시며 그들을 당창건위업실현에 로 이끌어주시였다.

지금도 당창건사적관에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집무실들과 회의 실, 응접실 그리고 수수한 집을 돌아 보느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가 가슴가득 안겨온다.

앞으로 창건될 당의 조직,정치로 선도 손수 작성하셔야 했고 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셔야 했 다. 복잡하게 얽힌 정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사색을 집중하시다가도 때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여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고 각 도에 파견되여 활동하는 정치공작 원들의 사업도 지도하시였다.

그때의 가슴뜨거운 추억에 대하여 항일의 로투사는 이렇게 썼다.

《항일무장투쟁의 긴긴 나날 건강 이 념려되여 하루밤만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조국 이 해방된 다음 푹 쉬자고 늘 말씀하 시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런데 조국땅에 개선하시여서도 날마다 밤 을 새우시니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문 얼마만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는 우 리의 소원은 언제 가면 이루어질것 인가.》

당창건준비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 으로 진행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 4 (1 9 4 5)년 1 0월 5일 예비회의를 소집하시고 당중앙지도 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 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1 0월 1 0일 마침내 북조선공산 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가 소집

잊을수 없는 10월 10일과 더

불어 전해지는 이야기 오늘도 만사 람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당창건을 하루 앞둔 10월 9일 스무해 긴긴 세월 꿈속에서도 그리 시던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복구건설의 불길을 지퍼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온종일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 이 저녁에는 당창립대회에서 하실 보고집필을 하시였다.

끼니마저 잊으신채 새벽까지도 집 필에 전념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한 일군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날이 밝 아온다고, 잠시나마 쉬셔야 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는 습관이 되여 일없다고 하시며 새 벽시간이 자신께는 제일 귀중한 시 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잠 시의 휴식도 없이 당창립대회보고의 마지막집필을 끝내시였을 때에는 어느덧 아침해가 떠오르고있었다. 창가에 서시여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파란곡절과 준엄한 시련을 겪던 우리 나라 혁명운동력사에 새 페 지를 기록할 시간이 다가오고있소. … 우리 당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 진 10월 10일의 아침은 이렇게

밝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 회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당건설과 당 의 당면과업에 대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대표들은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의 창설을 전적 으로 찬동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성을 터뜨리였다.

지금도 그려보느라면 연단에 높이 서시여 당창건을 엄숙히 선포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어려오고 격 정으로 높뛰던 숨결소리가 들려오는 듯싶어 눈굽이 젖어든다.

우리 당의 창건,진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 신 첫 시기부터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벌려오신 정력적인 투쟁의 결 실이였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 로 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창건

하신 후 그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중앙조 직위원회안에 첫 세포를 구성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자리에 앉 으실것을 바라는 일군들에게 앞자리 는 회의집행자가 앉아야 하며 당원 들은 누구나 다 당세포의 한 당원이 라고 말씀하시였다.그러시면서 장군님의 신임에 꼭 보답하겠다는 당 세포비서에게 당세포비서로 추천된 것은 전체 당원들의 신임이라고 하 시며 당원들의 신임에 꼭 보답하여 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을 때 라야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그려 놓은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진 우리의 당기!

바라볼수록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

로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이 더더욱 가슴뜨겁게 어리여온다.

주체 3 5 (1 9 4 6)년 로동당의 창립으로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 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광 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필승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 리 시대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빛나 는 상징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 행의 힘있는 전위부대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당창건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해방산기슭의 집에서 투사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업하시였다. 배식구가 달린 온돌방의 나무식탁에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대원들과 꼭 같이 잡곡밥을 드시였으며 옷차림도 수수한 군복차림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 감회깊 이 쓰신 따바리잠에 대한 이야기도 해 방산기슭의 이 집에서 있은 사실이다. 따바리잠이란 한장의 모포에 여러 명이 발을 밀어넣고 따바리모양으로 빙 둘러누워 자는 잠인데 항일무장 투쟁시기 나어린 경위대원들이 생각 해낸것이였다.

해방직후 지방공작을 하던 리오송 동지가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 나뵈오려고 이곳으로 찾아왔다. 취침 시간이 되자 그는 장군님과 같이 잘 때에는 따바리잠을 자야 한다고 하 면서 이불을 와락와락 밀어제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팔을 끌며 《장군님, 오늘만은 백두산시절처럼 따바리잠을 자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였다. 그리고는 다짜고 짜로 《장군님의 오른쪽에 김책동지 가 누우시고 그옆에 최현동지, 장군님의 왼쪽 옆자리는 내 자리입 니다.》하면서 잠자리들을 억지로 잡아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이 어처구니없는 지령 때문에 김책동지도 옴짝달싹 못하고 《따바리》속에 끌려들어갔다고 감회 깊이 회고하시였다.

진정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 하시고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줄 기차게 조직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가 사적관의 건물 하나에도. 사적물 하 나에도 소중히 깃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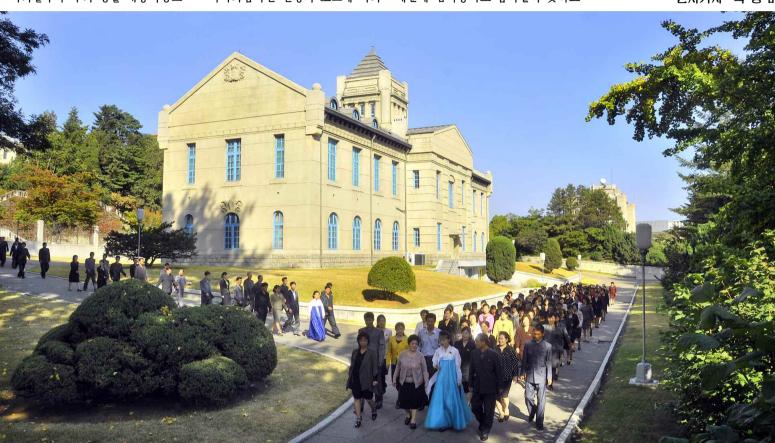
력사는 계승되여야 더욱 빛난다. 해방된 첫 기슭에서 고고성을 높이 터친 우리 당의 력사는 어언 70년 을 가까이하고있다.

이 름 도 빛 나 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영광스러 운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력사는 오 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더 욱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1 0월의 해방산기슭에 신념의 대 하 굽이쳐흐른다.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 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뗘세우자.

본사기자 백 영 미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우리 당의 자랑찬 력사가 깃든 당창건사적관을 찾은 근로자들

#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우리 당은 그 사명과 임무도, 당건설과 당 활동의 목적도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 기 위한데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선생이고 모 든것의 창조자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 어서 인민대중은 강력한 정치적지반 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당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 재로 내세워야 하며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 여야 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 러 당들은 당을 주로 계급투쟁의 무기 로 보았다. 로동계급의 당은 계급투쟁 도 벌려야 하지만 당을 조직하는 목적 자체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고 창조 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있는 칙도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여 야 한다. 동유럽의 사회주의집권당들이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고 결국

현실은 철두철미 당을 인민의 운명을 사랑을 가져야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 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 을 새겨주고있다.

우리 당은 창건의 첫 기슭에서부터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웠으며 《인 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 현하기 위한것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 한 령도도 철저한 인민성으로 일관되 여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 은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있으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 기고 안겨살 위대한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이다.

것만큼 당의 사명도, 당활동의 최고원 날 천이 없으면 자기 단벌옷이라도 뜯 어서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태를 잘라 팔아서라도 일 떠세 우도록 하시는분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인것이 우리 어머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국앞에 죄를

해줄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은 흔히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 라고 하지만 인민들을 위해서는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행복 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는것이라면 국 고금을 아낌없이 털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하여서는 타산 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자신의 산수 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라고 강조하 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 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본태가 있고 그 위대성과 불패성 이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 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하나의 제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품을 보시면서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 비극적 니들이였다고,이런 타산을 모르는 지은시람들에게도재생의길을 열어주고

명의 보호자가 우리 당이고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경공 업기지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번듯 하게 일떠세우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도 바로 우리 당이다. 인민을 위해 충실 히 복무하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일군 으로 평가되고 인민생활향상에 모든것 을 지향시켜나가는 당조직이 전투력있 는 당조직으로 되고있는것이 오늘의 긍 지높은 현실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 구호에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숭고 한 세계가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 는 혁명적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이며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뗘세울것

윤 철 희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행 복하게 하는것은 우리 당활동 의 최고원칙입니다. »

주체 9 8 (2 0 0 9 )년 새해 정초부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우리 인민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진군을 이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월 어느 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

시였다. 꿈결에도 그립던 위대한 장군님을 가 장 추운 날에 자기들 의 일터에 모시게 된

일군은 눈물부터 앞 서고 너무도 죄송하여 장군님께 대소한의 추운 날씨에 공장에 찾아오시게 하여 정말 죄송하 다고 말씀드리였다.

몸둘바를 몰라하는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우 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 입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날씨 도 가리지 않겠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은 수령님과 어머님, 우리 당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공장이라고, 어버이수령님 의 한생은 우리 인민에 대한 헌신의 한생이였다고,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의 행복 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치신

수령님의 높은 뜻은 우리 일군 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고귀한 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것 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시 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새기 며 일군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어버이수렁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인민에 대한 열 화같은 사랑이 안겨와 가슴이 뭉클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기계의 동음과 고치삶는 냄새 등으로 하여 현장은 장군님을 오래 모실만 한 곳이 못되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거기에

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대

에서 기대에로, 직장에서 직장

에로 걸음을 이어가시면서 공

장이 이룩한 성과들을 치하해

그러시면서 명주천이 아직 질

이 낮은데 마감가공을 잘하여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

다고, 방직설비들의 고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종업원들

의 기능급수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설비의

현대화를 마저 하여 생산을 정

상화하여야 한다고 공장이 나갈

새로운 결의에 넘쳐있는 일군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주시였다.

당부하시였다. 国

우리 장군님 하신 간곡한 당부!

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

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고있다고, 우리 인

민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

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

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해입히시려는 수령님과 당의 뜻

을 높이 받들고 질좋은 명주실

을 더 많이 생산하여 견직공장

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어찌 김정숙평양 제사공장뿐이랴. 한평생 인민행렬

차를 타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가신 공장이면 공장마다. 농장이면 농장마다 그 어디에서 나 하신 절절한 당부, 그것은 오 직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당부였다. 그 당부를 안으시고 오늘은 우 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행렬차에 계신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으 시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 의 별도 따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 려 이 땅우에 인민이 사회주의부 귀영화를 마음껏 노래하는 그날

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강 원 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캄 팔 라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 요웨리 카구라 무쎄베니각하 나는 귀국인민의 뜻깊은 민족적명절인 독립 52돐에 즈음하여 친선적인 우간다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귀국정부와 인민이 당신의 령도밑에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귀국의 륭성번영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주체103(2014)년 10월 6일

평 양

구성시 조양 참신하게 애국주의교양을

리당위원회에서 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일해나가도록 하 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

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 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과 내용

을 대중속에 깊이 심어주는 학습 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 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 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김정일애국주의를 통한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의 일군은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 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 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 라는데 대하여 실감있게 해설하 였다.

로농통신원 최명 순

이 땅의 남녀로소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우리 당의 력사 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 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혁명적동지애로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당 의 력사를 숭고한 동지애의 력 사로 빛나게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넘쳐날수록 못 잊 을 추억속에 돌이켜지는 이야기 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 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 이십니다. »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10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진 5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홰불 행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 <sup>|</sup> 였다.

# 고 한

당창건 55돐경축 홰불행진 을 통하여 우리 당의 두리에 철 통같이 뭉친 청년학생들의 불패 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없는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청년학생들의 홰 불행진대오에 《동지애》라는 글 발을 새기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한 일군의 뇌리에는 홰불행진을 준비하던 때의 일이 문득 되새겨졌다. 어느날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이 깊었는데 왜 아직도 퇴근 하지 않았는가고 하시면서 당 창건 5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화불행진에 《동지애》의 글발을 넣는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 였다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현지시찰 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이 올린 당

동 지 창건 5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형성도안을 보아주시 다가 전화로 주시는 가르치심

일군은 그이의 말씀대로 《동지애》의 글발을 잘 형상하겠 다고 말씀드리였다.

이였다.

그후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홰 불행진대렬에 《동지애》의 글발 하니 좋다고, 잘 형상하였다고 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 당창건 55돐경축 청년학생 들의 홰불행진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 한 손길아래 성과적으로 진행되 게 되였다.

홰불행진대오가 주석단앞을 지나가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지애》글발을 잘 형상하 였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을 더듬 으며 일군이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그이의 우렁 우렁하신 음성이 울리였다.

《동지애는 우리 혁명의 첫 시기에 수령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속 에서 높이 발휘된 조선혁명가

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입니 다. 우리 혁명은 동지애로 시 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성스러운 위업이며 우리 당의 력사는 동지애의 력사입 LICE. »

잠시후 동지애의 구호를 들고나가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군이 유럽에서 온 어느 인사가 당창건 55 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장엄한 화불행진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며 한 말을 그대로 말씀

드렸다. …이처럼 장엄한 홰불행진은 처음 본다.정말 놀랍다.《동지 애》의 글발을 새기며 굽이쳐흘 러가는 청년학생들의 대오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받들어

자기를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 버릴 이 나라 청년들의 저 강철 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힘이 과 연 이 세상에 있겠는가.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우 **쭐대면서 이 나라를 삼켜보겠다** 고 칼을 갈고있는 미국의 정객 들과 군부의 인물들이 이 홰불 행진을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것 이다. …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 군들에게 우리는 그 어느 나라 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혁명적동 지애로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혁 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 는데 대하여 당당히 자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 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혁명의 첫 시기부터 높이 들었던 동지 애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나 가야 합니다. …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혁명적동지 애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 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 만이 약속되여있다는 확신이 꽉

차올랐다. 본사기자 리금분

# 당창건기념일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로 들끓는 협동벌

# 강 서 구 역 공격전에 박차를 가해준 혁신적인 농 장 에 서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 며 삭주군 농촌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 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이런 불타는 맹세를 안고 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사람같 이 떨쳐나 가을걷이를 적기에 와닥닥 다그쳐 끝내고 낟알털기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혁신적인 사업방법과 일본새 로 올해 영농전투의 마지막공격 전에 박차를 가해주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주목된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걷이를 빨리 다그쳐 야 하겠습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군책임 일군들은 가을건이와 낟알털기 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 올해 농사결속을 지난해보다 앞당길 목표를 내세웠다.

-종전과 같은 로력과 수단으 로 그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 자면 우리들자신의 사업방법과 일본새부터 혁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각한 이들은 현실에 맞는 사업방법들을 적극 찾아 받아들이였다.

주 군 군 지난 시기와 다른 방법으로 초급일군들까지 농장일군들과

보여주기사업을 조직진행한 사 실을 보자. 그전에는 보여주기사업을 주

로 군소재지주변 농장에서 진행 하군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이 사실에 주의를 돌리였다. 군 은 크게 웃지구와 아래지구로 구분되여있다. 아래지구의 농장들중에는 군

소재지와의 거리가 거의 200 리 되는 농장도 있다.때문에 제일 먼곳에 있는 농장일군들 이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하려면 왕복 수백리길을 오가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분초 를 다투며 애써 지은 낟알을 빨 리 거두어들여야 할 때에 그들 에게 무엇보다 귀중한것이 시 간이였다. 보여주기사업도 알곡 증산을 위해 필요한것만큼 응 당 그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

야 하였다. 책임일군들은 이런 립장에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았다. 우선 보여주기를 하는 대상을 몇개 지구에 정하고 농장일군들이 해 자각을 보다 깊이 새겨안고 강 당 장소에서 이 사업에 참가하 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농장 냉이대베기와 이삭따기, 오사리 일군들이 좋아한것은 말할것도 벗기기를 비롯하 모든 곳정을 없고 누구나 보여주기사업에 열 성껏 참가하였다. 더욱 좋은것 은 거리가 먼 관계로 보여주기 그쳤다.

함께 와서 새로운것을 많이 보 고 배울수 있게 된것이였다.

농장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하여 보고 배운것을 실천에 구현한 결과는 좋았다. 농장원들이 전에 없던 왕성한 생산의욕을 가지고 애국 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가을걷이의 매 공정에서 질과 속도를 종전보다 몇배로 높여나

갔던것이다. 특히 아래지구 농장들에서 혁 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내옥, 옥강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일군들은 이신작칙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농장원 들이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 된 본분을 다하도록 힘있게 고 무추동하였다. 이들은 농장원들 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 업을 심화시키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분조판리제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 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 었다. 여기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라는

적기에 기술적요구대로 수행하 면서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 루하루를 혁신창조로 빛내이며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불타 는 열의를 안고 승리의 결승선 을 향해 총돌격해가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창조적이며 전투적인 일본새를 더욱 힘있게 발휘해나갔다.

일군들이 일단 내세운 목표수 행을 위한 사업에서 주도성, 창 발성을 발휘한것도 주목되는 점 이다.

아래지구 농장들의 낟알운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어 깨를 들이대고 떠밀어나간 사실 을 보자.

아래지구에는 웃지구보다 경 지면적이 많다. 때문에 여기서 가을걷이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야 군적으로 올해농사결속 을 빨리 할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서 중심고리가 낟알운반 속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본 일 군들은 발이 닳도록 뛰며 뜨락 또르다이야와 산간지대에 알맞 는 든든한 달구지쇠바퀴들을 적지 않게 해결하여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마음을 놓지 않고 운반수단들의 가동 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빈틈 없이 세우는데 달라붙었다.이 들은 공장, 기업소들이 웃지구 일군들은 가을걷이시기의 하 에 집중되여있는 조건에서 아

래지구에 이동식탈굑기를 비롯 한 농기계와 함께 운반수단들 을 만들거나 수리할수 있는 기 지를 새로 꾸릴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 밀어 완성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 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 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 현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이 과업을 심장에 새기고 주타격방향의 지 휘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

해 뛰고 또 뛰였다. 한가지씩 문제를 해결할 때미 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여긴 일군들은 자기들이 자재와 부속품을 실어다주기도 하면서 이 기지가 능력을 최대로 발휘 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중 대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 에서 낟알운반속도를 지난해보 다 두배로 높여 가을걷이와 낟 알털기를 제때에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게 하였다. 삭주군의 일군들은 오늘도 당에서 맡겨준 사회주의수호전 의 제 1 제대 제 1 선참호를 지켜 가는데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는 자각을 안고 혁신적인 일본 새를 계속 높이 발휘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였다.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민들의 애국적헌신성과 로력 적열성을 불러일으켜 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니다. »

강서구역 약수협동농 장에서 가을걷이에 본 격적으로 들어간지 며 칠 안되던 어느날 밤이 였다.

구역에서 진행된 회 의에 참가하고 돌아오 던 관리위원장 로기남 동무는 제 2 작업반 포 전에서 걸음을 멈추었 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일하고있는 모습이 보

였던것이였다. 웬일인가 하여 다가 선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농장원들이 방금 내리기 시작한 비 명금 네티기 기구는 에 옷이 흠뻑 젖었음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베 여눕힌 벼포기들을 논 두렁에 날라다 쌓고있

《오늘 가을한 포전인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비가 내리기에 혹

시 비물에 벼가 잠기지 않을가

약 수 협 걱정되여 옮기던중입니다.》

일손을 돕는 그에게 한 녀성 농장원이 하는 말이였다.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줍은듯 얼굴마 저 붉히는 녀성농장원의 속마음 을 농장일군은 알고도 남음이

올해의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 문분조장대회를 몸소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온 한 해를 벌에서 살다싶이 한 이들 이였다. 사실 강냉이가을걷이를 와닥닥 끝내고 벼가을전투에 들어서면서 농장일군들은 생각 이 깊었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 으며 땀흘러 농사지은 알곡을 어떻게 하면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일수 있겠는가. 일군들은 포전들을 매일이다

싶이 돌아보며 품종별특성과 앞 으로 예견되는 날씨 등을 타산 하여 가을걷이일정계획을 구체 적으로 세우고 농기계와 농기구 준비도 빈틈없이 하도록 하였 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그때 리당일군 은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달라붙으면 낟알허실을 막고 가 을걷이속도를 높일수 있다고 하 면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더욱 발동시키자고 하였다.

가을걷이가 시작되자 농장원 들이 분발하여나섰다. 모두가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자랑

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고 하 면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동 시에 밀고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제4작업반의 탈곡기가 멎어섰다. 설비상태를

들여다보던 수리공이 피대가 못

쓰게 되였다고 하면서 안타까와 하는것이였다. 탈곡기를 조금만 돌리면 하 루계획을 수행할수 있었다. 그 때 자리를 뗬던 작업반장 김정 섭동무가 땀흐르는 얼굴로 나 타나 피대를 내놓는것이였다. 작업반장의 그 모습은 작업반 원들의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

가을걷이에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간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라.

켰다. 그리하여 이들은 끝끝

내 그날계획을 수행하고야말

가을한 포전을 두번,세번 다 시 훑으면서 한알의 낟알도 허 실없이 거두어들이는 제 5작업 반의 농장원들, 운반수단들에는 물론 포전바닥에 깔 멍석들도 준비해놓고 가을건이에 진입하

제 1 작업반의 농장원들… 당의 뜻대로 포전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이들의 뜨거운 애국열의에 떠받들려 뜻깊은 1 0월의 하루하루는 높은 가을

걷이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 분 덕 군 만 흥 협 동 농 장 에 서

문덕군 만흥협동농장의 동가

리치기가 주목된다. 위 대 하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알의 남알이라도 🗭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일군 들은 낟알털기를 지난해보 다 앞당겨 끝낼수 있는 방도 의 하나를 효과적인 동가리 01

치기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찾았다. 올해는 지난 시기와 달리 이동식탈곡기를 많이 리용하 🚾 효과적이였다. 벼이삭을 짧 고있는 조건에서 실정에 맞는 동가리치기를 해야 벼의 수분 함량을 기술적요구대로 보장 하여 낟알털기속도를 높이면

서도 질을 보장할수 있었다. 가을한 벼를 오래동안 논 판에 펴놓아두면 밤에는 이 슬에 젖고 낮에는 마르면서 벼알껍질이 터질뿐아니라 단 ◀▼■ 을 묶을 때 벼알이 적지 않게 을 묶을 때 벼알이 적지 않게 **7** 떨어진다고 한다. 뿐만아니 라 비를 맞으면 낟알의 물기 함량이 많아지고 숨쉬기작용 ▮▮ 0 이 세져 영양물질이 많이 소 비되므로 천알무게가 훨씬 나

그러므로 일정하게 마른 벼는 제때에 단을 묶어 동가리 를 쳐야 낟알허실을 막으면서 낟알털기를 질적으로 할수 있었 다. 그래서 이곳 일군들과 농장 원들이 받아들인것이 종전의 원

형식이 아니라 《+》모양의 동가 리치기였다.즉 벼이삭이 안쪽 으로 들어가게 《+》모양으로 단을 쌓게 하는것이였다.이 때 벼단을 25~30개정도

사업에 자주 참가할수 없었던

쌓되 높이가 1.5m아래로 작게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통풍이 잘되 여 벼를 기술적요구대로 말 리울수 있을뿐아니라 비가 내려도 벼이삭이 젖는것을

막을수 있었다. 이것은 종합 탈곡기와 함께 이동식탈곡기 를 리용하여 포전에서 낟알 털기를 하는 조건에서 아주 은 기간에 말리워 보장할수 있으므로 낟알털기실적을 올

릴수 있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일부 포전들에서 논 마른 상태, 낟 알털기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원형동가리치기를 받아들인 적도 있었다. 그러다나니 벼 단을 움직이는 거리가 멀어지 고 벼이삭이 잘 마르지도 않 았다. 특히 물이 잘 빠지지 않 는 논에서는 동가리를 치는데

품이 많이 들었다. 《+》모양의 동가리치기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이런 현상 을 막을수 있었다.

농장에서는 효과적인 동가 리치기를 받아들인데 맞게 로력조직도 합리적으로 하였 다.지금 이것이 은을 내고있 다. 낟알털기속도를 높이면서도 질을 보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등되였다.

# 1%이 알곡예비를 어떻게

경 흥 협 동 농 장 에 서

위 대 한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벼를 잘 걷어들이고 낟알 털기를 깐지게 하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말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신흥군 경흥협동농장 관리위 원장 전철근동무는 당의 뜻대로 올해농사결속에서 낟알허실을 결정적으로 막기 위한 문제를 놓고 고심하였다. 한것은 지난 시기에 애써 지

은 곡식이 벼단을 여러번 옮기 는 과정에 적지 않게 허실되였 기때문이였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동식벼랄곡기에 의한 난알털기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러 나 아무리 타산해보아도 지금 있는 이동식벼랄곡기들만으로는 할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작업반 들에 고정설치되여있는 종합탈 곡기들을 리용해야 하였는데 그 러면 종전처럼 벼단을 탈곡장까 지 실어들이는 과정에 여러번 옮기게 될수 있었다.

결국 이것은 벼 정보당 수확 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시급히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 다.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였 다. 론의의 초점은 한곬으로 집

당의 뜻대로 올해의 알굑고 이 벼단을 실어들일수 있는 충 지를 기어이 점령하자면 한알 의 낟알도 허실하지 말아야 한 다. 벼단을 한번 옮길 때 벼이 삭 하나에서 한알의 벼알이 떨

어지는것으로 보면 정보당 50kg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 다. 이 량은 우리 농장실정에 서 정보당 소출의 1%에 달한 다.때문에 벼단을 탈곡장까지 단번에 실어들여 그날로 털어

야 한다. … 집체적토의끝에 일군들은 벼 단옮기는 회수를 줄이면서도 낟 알털기를 와닥닥 끝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들을 찾아내고 실 천해 나갔다.

우선 탈곡장에 벼단을 실어들 여 낟가리를 쌓는 공정을 없애 도록 하였다.이전시기 농장에 서는 포전에서의 낟알허실을 막 장에 큰 낟가리를 쌓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벼단을 탈곡장에 부 리워 낟가리를 쌓느라 벼알들이

많이 떨어졌다. 낟알털기를 할 때에는 높이 쌓은 낟가리에서 종합탈곡기까 지 벼단을 또 옮기면서 벼알을 떨구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작업반들 에서 동가리를 친 다음 벼단을 충분히 말리워 낟알털기속도에 알맞게 실어들이도록 작업조직 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던 인포탄광 초급당비서 김정

상동무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

3대혁명소조원들이 어떤 기

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한

다는 내용은 반영되여있었지만

그들의 생활을 더 잘 돌봐주기

위한 문제는 예견되여있지 않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 대혁명소조파견단위의

당책임일군들은 3대혁명소

조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

건을 잘 보장해주어 그들이

소조활동에 전심전력하도록

사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

은 합숙을 따로 가지고있지 못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좀 불

편을 느끼고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탄광에 도움을 주는 기술

혁신안을 한가지라도 더 실현하

물론 기술혁신과제수행도 중

요하다. 하지만 3대혁명소조원

들에게 사업조건,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해주는것도 그에 못

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소조

원들이 탄광을 자기 집처럼 여

기고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전심

전력하게 하자면 어머니다운 진

문제를 이렇게 세운 초급당비

정을 기울여야 한다.

기 위해 애쓰고있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때문이였다.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낟알털기에 지장없

분한 준비를 갖추는 문제도 놓 치지 않았다.

낟알털기성과는 벼단실어들 이기를 어떻게 앞세우는가에 따 라 좌우된다.

벼단이 딸려 탈곡기를 세우면 그만큼 낟알털기속도가 떠져 허 실을 막을수 없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작업반들 에서 벼단을 싣고부리는데 필요 한 로력을 넉넉히 배치하는것과 함께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 다들의 머무름시간을 극력 줄이 도록 하였다.

이때 련결차에는 널판을 대거 나 가름대같은것을 설치하여 벼 단싣는 량을 늘임으로써 단위시 간에 더 많은 벼단을 나르도록 하였다. 또한 뜨락또르가 드나들기 힘

리에 있는 포전의 벼단을 달구 지로 나르기 위하 대책도 철저 히 세웠다. 결국 포전에서 탈곡장으로 단

텀어냄으로써 낟알허실을 극력 줄일수 있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1%! 이 수자는 한알의 벼알 알털기를 하면서 한알의 낟알 도 크게 보고 아글타글 애쓰는 도 허실하지 않도록 가을걷이

는 애국농민이라는것을 깨우쳐

본사기자 황연옥 우에 이동식탈곡기를 설치한 다



난알털기를 허실없이 제때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든다. -영광군 관수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 로성협동농장 의 포전들에 탈곡장들이 생겨나

낟알텀기실적을 올리고있다. 당의 요구대로 낟알허실을 없애야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 이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명심 한 일군들은 이동식탈곡기를 번에 실어들인 벼단을 그날로 포전들에 설치하고 직접 낟알

털기를 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함께 포전에서 낟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당이 바라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고있다.

포전들에 방수포를 펴놓고 그

허 음 낟알을 털도록 하였다. 또한 하루작업이 끝나면 농장 원들모두가 동원되여 탈곡장들

에 흘린 낟알을 한알도 허실함 이 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도록 작업반들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특히 제5작업반과 제2작업반이 낟 알털기시작부터 매일 맡겨진

가을걷이전투에서 앞장서나가 고있다. 이곳 초급일군들은 이동식탈 곡기들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여

빠른 기간에 낟알털기를 끝내도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함으로써

빈틈없이 짜고 들고있다. 낟알털기에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은 북데기속에 한일 의 낟알도 섞여나가지 않도록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 고있다.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부 림소관리공들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낟알털기에 지장이 없도록 벼단운반을 적극 따라

록 작업조직을

세우고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라 의 쌀독을 가득 채우려는 일군 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적열의와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가을걷이 와 낟알털기실적이 계속 오르고

김 강 철

# 소백수골에서 풍성한 남새 수확

백 두 산 밀 영 혁 명 전 적 지 관 리 소 에 서

령 도 자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맨손으로 연

길폭탄을 만들어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유격대원들 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사업에서 걸린 분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백수골에서 풍성한 남새수 확이 한창이다. 통이 앉은 배추 다 품을 들여 생육기일이 짧은 며 긴무우는 벌방지대에서 생산 하는 남새 못지 않다.

저울에 떠본데 의하면 무우 한개의 무제가 2.5kg이나 된 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 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3정보 에서 수확한 수십t의 남새를 세 1 500m나 되고 서리피해가

대당 수백kg씩 나누어주고 답 사숙영각 식당 과 저장탕크들 에도 넣었다. 백두산이 지 척인 소백수골 에서 남새농사 는 불가능한것 으로 되여있었

다. 이 고장에서

하지만 몇년전부터 관리소에 서는 김장용남새를 자체로 심고 가꾸어 수확하고있다. 그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관리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백두산밀영주변에 밭을 일구고 부루, 쑥갓을 심으신 숭고한 모범 을 본받아 자체로 남새문제를 풀 잡도리를 하고 달라붙었다. 남새농사를 위해 일군들은 해마 남새종자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부석층으로 되여있는 땅우에 거 름을 정보당 3 Ot씩 내고 소백 수골의 기상기후조건을 과학적 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6월말 ~7월초에 씨를 뿌렸다.해발

용남새를 날라오군 하였다. 많은 이 고장에서 남새를 자래 우자니 얼마나 많은 품을 들였 겠는가. 하지만 이들은 물러서 지 않았다. 소백수골에서 남새농사를 짓

업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 백두산이 지척인 소백수골에

이들은 김장용남새만이 아니 라 여름에는 온실남새를 생산하 고 청취, 참취, 곰취를 비롯한 산 나물을 1 Ot이나 채취하여 온 한해 부식물로 리용하고있다. 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기 위해 관리소의 일군들과 종

적극 따라배워 남새농사를 짓고 있는 경험은 삼지연군에 널리 일반화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철 주

서 항일유격대식생활기풍을



# 소 조 원

초 급 당 위 원 회 올해 1월 3대혁명소조사업 서는 막장가까이에 3대혁명소 한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조원들의 합숙을 멋들어지게 지 을 맡아보는 한 일군을 만나 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 간에 추진할 문제들을 알아보 어줄 결심을 하였다. 였다.

> 구내를 돌아보면서 합숙위치를 잡아주었다. 이미 3대혁명소조합숙을 잘 꾸린 단위들에 일군들을 파견 하여 좋은 점을 받아들이게 하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탄광

였다. 합숙을 멋들어지게 건설할 방 도도 가르쳐주고 착공한 첫날부 터 현장에서 대중과 땀을 함께 흘리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된 일군들 과 돌격대원들은 한사람같이 뗠

4 0일후에는 실험실을 갖춘 사무실이 일떠섰다. 합숙에는 들어앉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침실

쳐나섰다.

마다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 기, 선풍기도 놓아주고 탄팡가 구제작소에서 시제품으로 만든 이불장과 양복장,책장과 책 상, 의자를 갖추어주도록 하였 다. 소조원들에게 콤퓨터도 보 내주고 소조원들의 식당에 극 동기도 놓아주게 하였다. 하여 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 활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 5월 평안남도당위원 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에 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3대혁명전위로서 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반영은 대단히 좋았다. 3대혁명소조합숙을 잘 꾸려 준것은 소조원들에게 훌륭한 사 업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었 다는데만 의의가 있지 않았다. 그들이 안착되여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하였다는데 더 큰 의의 가 있었다. 또한 일군들에게는 우리 당이 품들여 키워낸 귀중 한 새 세대 인재들인 3대혁명 소조원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세워준 좋은 계기로 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믿음직 한 과학기술력량으로 보고 그들 이 창조의 나래를 활짝 퍼도록 침실,세면장,한증칸,창고도 떠밀어준것은 이굣 초급당위원 회일군들의 사업에서 본받을만 한 좋은 점이다.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을

어느 한 형의 착암기를 개조 한 과정을 놓고보자. 이 기술혁신안을 3대혁명소 조원들에게 맡기자고 하였을 때

의견이 분분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절실한 문제를 종자로 잡았다고 하면서도 대학 을 갓 졸업한 그들이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렸 다. 능력있는 기술일군들을 붙 여주어야 성공할것이라는것이

그들의 주장이였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견해를 달리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나라의

군 들 의 억센 기둥감들로 키우자면 기술 혁신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도 록 창조의 나래를 달아주어야

> 한다고 보았다. 착암기부분품들인 기름주유 기분사구의 시간당 기름소비량 을 줄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 아 소조원들이 모대기고있을 때

3대혁명소조책임자 리철룡 동무에게 길떠날 준비까지 해주 며 그를 모교로 뗘밀어준 사람 이 바로 초급당비서였다. 평성석탄공업대학에 간 리철

룡동무는 해당한 기술적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스승들과 머리 를 맞대고 토론을 거듭하는 과 정에 합리적인 기름분사방법을 찾아내고야말았다. 탄광에 도착한 그날 3대혁명

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있던 초 급당비서와 지배인이 그를 축하 해주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 있었던것이다.

소조책임자는 더욱 놀랐다. 그

다음날 탄광적인 기술협의회 가 열리였다.

모교로 간 그가 합리적인 기 름분사방법을 찾아냈다는 소식 을 들은 초급당일군이 지배인에 게 상정시켜 그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 하였던것이다.

이렇게 착암기가 개조됨으로 도가 종전에 비해 1.5배로 경험적이다.

하여 굴진을 앞세워 석탄생산 을 늘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

게 되였다. 주저앉을세라, 힘들어할세라 늘 곁에서 보살펴주면서 창조의 나래를 한껏 펼치도록 진정을 다 바치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 의 방조밑에 이곳 3대혁명소조 원들은 1년 남짓한 기간에 근 2 0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나날 이곳 3대혁 명소조원들은 10건의 새 기 술도입증과 6건의 창의고안증 서를 받았다.

특히 이들이 창안하여 제작 한 음파대전식물분사기구는 제 4 차 전국 3 대혁명소조기술 혁신전시회에서 1등으로 평가

3대혁명소조생활기간에 파 견단위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더 많이 해결하려 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열망은

한결같다. 문제는 당조직들이 3대혁명 소조원들이 창조의 나래를 한 껏 펼치도록 그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얼마나 잘 보장해 주는가에 달려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어머 니다운 진정을 기울여 그들이 3대혁명전위로서의 역할을 훌 륭히 수행하게 한 인포탄팡 써 그 성능이 좋아졌다. 천공속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본사기자 손 영 희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17돐과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추 대 되 신

亚 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경축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높 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8일 모란 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 기판,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판 일군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이 공

음악회장소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 막순간까지 불멸의 혁명실록을 수놓 으시며 우리 당과 혁명위업의 승리 적완성과 휘황한 미래를 위한 만년 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 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관현악서곡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관

현악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장군님생각》. 《발걸음》. 바이올린2 중주 《내 심장의 목소리》 등의 종목 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로동당 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순결 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

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헤치며 천만

군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세기적 인 기적을 창조하여온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력사를 숭엄한 예술적화 폭속에 되새겨보게 하는 곡목들은 판 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무대에는 관현악 《바다 만풍가》,

《그네뛰는 처녀》,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이 강산 하도 좋 아》의 곡목들이 올랐다.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배합 관현악의 풍만한 울림으로 장 내를 진감시킨 음악회는 관람자 들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당이 있기에 조선 혁명은 주체의 한길에서 영원 히 백승을 떨칠것이라는 확신 을 안겨주었다.

교향련곡 《당에 드리는 노래》로 막을 내린 음악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 의 당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 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뗘세 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 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9돐경축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가 8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군들과 로동계급, 직 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역 초급직맹위원장 남춘빈은 《억센 뿌리》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 초하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지체없이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격 조높이 토로하였다.

그는 탁월한 령도로 우리 당을 이끄시여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 사회주의강국을 일뗘세우시고 로동당 시대의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주체의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웅변 《불멸의 업적》에서 2.8직동 청년탄광 로동자 로만기는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인민대중 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어버이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끝 없이 충실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을 지닌 혁명적당, 튼튼한 대중적지반 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응변《위대한 수호자》,《조선속도》 라는 제목에 출연한 만경대혁명사적 판 직맹해설원 원경옥, 평양철길대 직맹이동해설강사 류창순은 경애하는 을 옹호교수하고 계승발전시키시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속도창조에 로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키고계시는

데 대하여 감동깊게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혁명 전통을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만년 재보로 지켜주시고 빛내이시기에 선 군조선은 위대한 사상의 강국, 혁명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는 불패의 강 국으로 빚을 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와우도구역출판물보급소 직맹초급 단체 부위원장 리숙연은 웅변 《위대한 복무자》에서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 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을 위하여 끊임없는 선군장정을 이어 가시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헌신속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휘황찬란 한 미래가 앞당겨지고있다는 그의 웃 변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 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 에 의하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

장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있는데 대하여 평양화력발전련합기 업소 로동자 김문혁은 웅변 《만복의 꿈》에서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라는 제 목의 웃변에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 업소 직맹이동해설강사 김은정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 새겨온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위업을 끝까지 계 승완성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웅변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 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 갈 직맹일군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 청 년 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8 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창건기념탑, 개선문, 평양체육판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 을 다 바쳐가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 고 모여온 청년들로 설레이고있었다.

우리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강력 한 전위대오로 키워주시고 청년운동 발전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 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되는 무도회장들에 《인민 의 축원을 받으시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당은 장군님의 품》,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회

우리 당에》등의 노래가 련이어 울리 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 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우리 당을 영 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위 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 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춤물 결을 일으켜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 의 홰불봉을 억세게 틀어쥐고 강성 할 래일을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 쟁에서 값높은 위훈을 새겨가는 청 년전위들의 혁명적랑만을 담은 《청 춘의 자랑》, 《달려가자 미래로》, 《배

우자》를 비롯한 경쾌한 노래소리가 10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해

의

들

진

청춘의 희열과 열정이 차넘치는 무도회장들에 《철령아래 사과바다》, 《전선행렬차》, 《흘라리》 등의 노래선 률이 울려퍼지자 무도회분위기는 더 욱 고조를 이루었다.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를 열어제끼 는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조선속도창 조의 기수가 될 드높은 결의로 세차 게 고동치고있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에서도 청년학생 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참가자들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조선로동당창건 69돐경축 제9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참가자 들의 종합발표회가 8일 평양학생소 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발표회에는 양금독주 《우리 아버지》. 민요독창 《고마워요 당의 품》, 녀중창 《더 높이 부르자 김정일장군의 노래》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 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 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그리움을 절

절하게 노래하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희망과 재능 의 나래를 활짝 펼쳐나가는 학생소년 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하모니카독

주 《혁명군놀이》, 고음저대독주 《제일 좋은 내 나라》, 독무 《부채춤》을 비롯 한 종목들에 담아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그대로 지니시고 온

나라 강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반영한 3중창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진 구연《파도소리》등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발표회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 사랑을 정히 받드시고 학생소년들에 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창창 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

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장, 관계부문과 청년동맹일군들, 평 양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이 발표회를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체육열풍 10월의 환희를 더해주는 전 국 도 대 항 군 중 체 육 대 회 - 1 4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의 승전 소식으로 온 나라 천만군민이 끝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이 고있는 지금 뜻깊은 10월의 환희를 더해주며 평양에서 전국 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사 람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나라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에서는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륙상경기에 참가한 각 도(직

할시)의 체육단선수들은 어머니 조국을 금메달로 빛내갈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평시에 련 마한 높은 기술을 보여주었다. 륙상경기에서는 강원도와 황해 남북도의 체육단선수들이 훌륭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한 경기장면들을 펼치였다.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대중체 육경기들이 수많은 체육전문가 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진행

>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체 육경기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고있다.

모란봉청년공원에서 진행된 그네뛰기경기에서는 함경북도 와 평안남도, 자강도의 선수들

이 인상깊은 경기장면들을 보여 주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된 태권 도 단체틀경기에서는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팀의 선수들이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박력있게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상대팀들을 이기였다.

단체맞서기경기에서는 매 팀 에서 여러 몸무게급의 남자선수 들이 출전하여 치렬하게 승부를 다투었다. 서로가 맞잡고 기회를 노리다가 도 순간에 상대방의 약점을 포착 하고 다양한 씨름수법을 적용하여 통쾌하게 이기는 씨름경기가 사람

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씨름 경기에서 어른들의 씨름장면도 볼만 하지만 애기씨름경기에 출 전한 나어린 선수들이 훌륭한 경 기장면을 펼칠 때마다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씨름경기에 못지 않게 각 도 (직할시)를 대표하여 수십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힘겨루기를 하는 바줄당기기경기 역시 장관 이다. 손에 기발을 쥐고 솜씨있 게 자기 팀 선수들이 폭발적인 힘을 쓰도록 고무하는 각 팀 지 휘자들의 모습도 볼만 하고 집 단의 조직력, 단결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면서 힘을 합쳐 바줄을 당

기는 선수들의 경기모습도 사람 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고있다. 한쪽에서는 바줄당기기경기가 열기를 띠고 진행될 때 또 한쪽에 서는 윷놀이경기가 기쁨과 이쉬움 이 엇갈리는 속에 벌어지고있다.

축구, 배구, 롱구, 로라스케트경

기도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 를 떨친 녀자축구선수들처럼 내 나라를 빛내이는 훌륭한 축구선 수들로 준비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각 도(직할시)의 나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평시에 련마한 높은 축구기초기

든든한 방어로부터 불의적인 역습속공을 시도하는 팀들도 있고 첫시작부터 맹렬하게 공격을 들이 대여 상대팀을 압박하는 팀들도

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있다. 상대팀의 방어진을 허물기 위해 공격방향을 자주 바꾸기도 하고 대담하게 중장거리차넣기를 시도하는 팀들도 있다. 현재까지 의 경기성적을 보면 평양시팀과 함경북도팀이 앞서나가고있다.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는 빠른 속도몰기와 재치있는 련 락, 정확한 던져넣기로 사람들 의 감탄을 자아내는 녀자롱구경 기가 치렬하게 진행되고있다.

단 한점이 모자라 경기에서 지고 아쉬워하는 팀들도 있고 점수차이를 많이 내고 조별련맹 전에서부터 실력을 남김없이 과 시하는 팀들도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남 자배구경기 역시 체육전문가들파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각이한 공격위치에서의 강한 타격과 든든한 막기, 재빠른 이 동에 의한 공받기와 공련락이 엇갈리는 남자배구경기에서는 평양시, 함경북도, 평안북도, 남 포시팀들이 조별련맹전에서 우 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특히 평양시팀에서는 조직자 인 손충남선수의 멋진 공련락에 의한 주장 김명국선수의 강타가 련속 성공되여 조별련맹전과 준 결승경기에서 맞다드는 상대팀들

소학교학생들이 출전하는 로 라스케트경기가 로라스케트장 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당의 은정속에 전국각지에 꾸 려진 로라스케트장들에서 마음 껏 기술을 익힌 나어린 선수들 의 로라스케트경기에서는 강원 도, 평양시, 자강도팀 선수들이 앞선 자리를 차지하였다.

치렬하게 승부를 다투며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되는 전 기간 각 도(직할시)에서 올라온 응원단들도 여러가지 응원기재들 을 리용하여 특색있고 열광적인 응원으로 자기 팀 선수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경기장들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력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의 종목별경기들에는 한가족 혹 은 같은 기판, 기업소종업원들 이 선수로 출전하는 경기도 있 어 더욱더 이채를 띠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조선속도창조의 거세찬 열풍이 휘몰아치고 우리 체육인들이 높이 울린 승전포성 이 메아리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린 전국도대항군중체 육대회-14는 온 나라 인민에 게 뜻깊은 10월의 환희를 더해 주며, 체육열기를 북돋아주며 더 욱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 글 본사기자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정 순 애 본사기자 리충성











이야기하는 그의 친절성에 전

쟁로병은 절로 눈굽이 뜨거워

영, 김병철동무들은 그가 치료

의자에 앉도록 하고 치료를

성의껏 하군 하였다. 눈비내리

는 궂은날에는 전쟁로병의 집

으로 찾아와 치료했다. 왕진은

하루이틀이 아니라 8년동안

왕진가방과 함께 갖가지

당과류와 식료품까지 들고오

는 의사들을 대하는 전쟁로

병의 눈시울은 늘 젖어있군

여섯해전 여름 전쟁로병은

골수염증상이 심해져 일반외

과에서 전문치료를 받게 되였

다. 일반외과에서는 그가 전쟁

시기 입은 부상으로 골수염이

심한 상태에 이른것만큼 곧 수

의사협의회에서 의료일군

들은 조국을 지켜싸운 전쟁로

병이 부상을 당한것만도 가슴

아픈데 어떻게 다리를 자르겠

는가고 하면서 지혜를 합쳐

이 사실을 두고 전쟁로병의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생각은 더욱 깊어만졌다.

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계속되였다.

하였다.

전쟁로병의 치료를 담당한

났다.

# EE 히 H 20 HН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

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있

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 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요즘은 그 어디를 가나 체 육소식이 사람들의 화제거리

로 되고있다.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혁혁 한 성과를 두고 온 나라가 기 뻐하며 선수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있다. 너자축구팀의 주장 10번 라은심, 득점명수 3번 허은 별, 탁구선수들인 김혁봉, 김 정, 세계력기계를 또다시 들었 다놓은 김은국, 엄윤철, 김은 주, 리정화…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 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수십 리 연도에서 장하다, 우리의 아들딸들아!라고 목청껏 웨 치는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던 그들의 얼굴마 다에 뜨겁게 흘러내리던 격 정의 눈물이.

그 눈물은 부모형제들과 다 정한 이웃들, 환영의 꽃바다를 이룬 수도시민들에게 보내는 로동당이다. 기쁨의 눈물이기 전에 위대한

# 은 꿈과 소원도 스스럼없이

터놓고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한 학자의 삶이 우리의 가

류순렬, 조선로동당원, 공

불러만 보아도 가슴벅차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교

편을 잡고있는 그가 바로

어제날 자본주의일본땅에서

막돌처럼 버림받던 소년이

막벌이군의 아들이 학계와

누가 그를 이렇게 훌륭히

위대한 당의 품에 안겨 공부도

《인생의 황혼기에 생을 돌

이켜보니 당의 품속에서 성장

해온 꿈같은 나날이 추억깊게

떠오릅니다. 영광과 행복으로

숨막히게 가슴부풀던 격정의

류순렬동무의 말이다. 그는

자주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

며 마음속결의를 다지군 한

다. 마음껏 공부하고싶었던 소

하고 조선로동당원도 되였으며

이름난 학자도 되였다.

나날이였습니다. 》

교육계의 권위있는 학자로!

키웠는가. 낳아준 부모가 아니

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허물도 그 품속에서 아뢰이며

것이다.

반사…

였다.

였다.

슴을 울린다.

령 도 자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뜨거 운 감사의 눈물이였다.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

히 여겨 키워주고 가꾸어준 그 품에 더 가까이 안겨드는 우리 당의 품이 없었다면 꿈 같은 그 영예와 값높은 삶을 생각인들 해보았으랴.

딸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그 애를 온 나라가 다 아는 축구선수로 키워준 품은 어 머니당의 품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던 축구선수 허은 별동무의 어머니의 말이 귀 전을 두드린다.

당에서 품어 키워준다! 뜻깊은 말이다. 태여날 때에 도, 자라날 때에도 늘 곁에서

지켜주고 보살퍼주는 품이 있 어 이 나라의 아들딸들은 그 품속에서 재능도 희망도 마음 껏 꽃피우는것이다.

그래서이리라. 이 나라의 천 만자식들이 조선로동당을 어 머니품이라 부르며 그 품속에 안겨드는것은.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책임져 주고 빛내여주는 그 품 떠나 순 간도 살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껴 온 온 나라 인민들이다.

말 못할 괴로움도 마음속 사연도 어머니의 웅심깊고 사려깊은 눈으로 헤아려주고 보살펴주는 품이 바로 조선

학자로, 교육자로 내세워준 어 머니당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 도 늘 따뜻한 어머니손길로 보살퍼주고 내세워주며 걸 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당 의 품이 있기에 이역땅의 천 덕꾸러기였던 류순렬동무도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은 것이다.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주 는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 잊을수 없다. 온 나라를 격 동시켰던 위대한 사랑과 믿음 의 친필이.

금골의 이름없는 광부였던 박태선동무를 애국렬사로, 공 화국영웅으로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고 그가 일하 던 소대를 그의 이름으로 부 르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름없던 한 농민의 소행 을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 닐수 있는 미덕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그의 삶과 최 후를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 과 믿음이 있어 공화국영웅 리창선동무도 영생의 언덕에 오른것이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참된 인간의 삶의 시작은 있어도 못살아! 끝은 정녕 없다.

기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 생겨도 그 언제나 어머니 당을 먼저 찾고 운명도 미래 도 다 맡기는 그 품,하기에 한 시인도 어머니당의 그 위대한 품을 격조높이 노래하 지 않았던가.

步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 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

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 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

로 부르고부르리라-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그렇다.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당의 품, 그 품속에서 해 빛같은 사랑과 믿음을 생명수 로 받아안으며 자란 아들딸들 이기에 이 나라의 천만군민은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펄펄 나붓기는 성스러운 당기 를 우러르며 소리높이 마음속

진정을 터친다. 어머니당이여,그 품 뗘나

본사기자 오은별

조국은 우리가 상상하였

던것보다 더 따사롭고 정다

운 손길로 우리를 품에 안

아주었다. 나들이옷을 넣은

가방 하나씩밖에 가져온것

이 없는 우리들에게 나라에

서는 가장집물이 다 갖추어

위대 한 령도자 정으로 치료방도를 하나하나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였다. 《저지

영예군인들을 존대 호흡기내과 의사 송명희동무 지는 성메군인글글 본대 하는것은 총대로 와 같은 과의 의사들인 김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를 받으러 가면 언제나 밝은 로 우리 자되고 는 한 정신도덕적기풍 우리 사회의 고상 미소를 짓고 《어서 오십시 오.》하며 저마다 부축하여

입니다. » 2006년 여름 대 ■ 성구역 룡북동에서 사 는 송용복로인은 동지 를의 천고도 있고 고 몸상태도 이전같지 않

아 평양시제 2 인민병 원을 찾았다. 그는 평 양건설건재대학(당 시)에서 교편을 잡고 이다가 너무 있다가 년로보장을 받 은 전쟁로병영예군인 大 이였다.

종합검진을 하고난 의사는 그가 일손을 놓은지 10년이나 ○ Ⅱ 된데다가 로환이 겹 쳐서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 면서 우선 호흡기내 과에서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기관지천식 치료를 하고 결과를

보아가며 전문과들에

서 다른 병들을 치료하자고 상냥하게 건의했다. 친아버지를 위하는 딸의 심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운 손길로 안겨왔다. 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며 그 품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 하늘처럼 떠받든다는것이다.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미용사 직업이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일본땅에서 리발사나 미용사 들은 까까쟁이로 놀림받고 천

대받던것이 생각나 그만두려 고 하였었다. 

가 하고 생각을 굴리는 속에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근 면하게 헌신적으로 일하여도 돈과 권력이 없으면 노예처럼 취급당하게 된다.

미용사로 일하던 초기 손님 들의 머리를 정성들여 해주었 을뿐인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진이 선거장에 나붙은것을 보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 였다. 조국방문차로 평양에 왔던 언니들은 네가 주권기 판의 대의원이라는것이 믿어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감격 스러워하였다.

보건일군들에 대한 고마움으

로 날을 보내던 어느날 과장 고수미동무를 비롯한 조제과

전쟁로병은 또 한번 가슴

이 뭉클했다. 입원생활을 하

면 사람이 그립다고들 하지

만 단지 그때문만이 아니였

다. 태양절과 광명성절, 전승

절을 비롯한 명절때마다 찾

아와 보약들을 안겨주며 지

성을 바쳐온 조제과의 의료

2008년 8월부터 11

월까지 3차레에 걸치는 대수

술을 통해 골수염을 깨끗이

치료받은 전쟁로병은 자기 발

로 걸어서 병원을 나서게 되

그날 전쟁로병은 떠나기에

앞서 다시한번 병원을 돌아보

았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보건제도이고 얼마나 아름다

운 마음을 지닌 우리의 보건

일군들인가. 지난 기간 수십

년동안 교단에서 인민대중중

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

월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제자

들에게 수많은 사실자료<mark>들</mark>을

들어가며 강의를 해온 부교수

인 그였지만 년로보장을 받은

8 0 고령의 몸으로 우리 제도

의 고마움을 체험한 그 감정

을 어떻게 표현하였으면 좋을

그저 로동당만세를 심장으

평범한 미용사인 나의 사

로 웨쳤을뿐이였다.

지 몰랐다.

일군들이였다.

였다.

의료일군들이 찾아왔다.

몇해전 나는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미용교 류사업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 된 이 사업을 통하여 나 그런데 한 동무가 우리 나 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는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더욱 가슴뜨겁게 절 감하였으며 미용봉사를 세계

겨준 포부와 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진다. 오늘도 당은 나의 곁에서

# 하기에 사람들은 가슴에 품 년의 꿈을 이루어주고 어엿한 육

# 평양기계대학 교원 심동수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이 혁명대오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 에 당과 운명을 같이하면 서 온갖 시련을 이겨낸 인 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 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붕쳐있다. 》

당창건기념일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창전거리의 만수동 1인민반 3층 1호에 서 사는 심동수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심동수동 무의 맏딸인 동대원구역 새살 림고급중학교 교원 심선영동 무가 문을 열고 우리를 반갑 게 맞아주었다.

첫눈에도 주부의 알뜰한 손 길이 구석구석 엿보이는 부엌 을 건너 한 방에 이르니 그곳 ◎ 에서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없었습니다.》 함께》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오

고있었다. 가정의 주부이며 동대원구 역 동대원고급중학교 교원인 한은순동무와 그의 둘째딸인 평천공업대학 분교 교원 심혜 영동무가 우리를 방으로 이끌

살림방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앞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동수동무의 가족과 함께 찍으신 뜻깊은 기념사진이 안겨왔다.

《정말이지 2년전의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훌 회에 아버지, 어머니, 자기와 륭하게 꾸려진 집을 받아안은 동생이 참가한 일들을 격정에

기쁨도 큰데 나라일에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집 들이를 한 우리 가정의 앞날 을 축복해주시며 사랑의 축 배도 부어주실줄 어찌 알았

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심동수동무 는 그날의 감격이 사무쳐와 눈굽을 훔치는것이였다.

이름없던 자기를 어엿하게 키워 대학교단에 내세워주고 딸자식들까지도 모두 대학에 서 공부하도록 해준 당의 사 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저 그는 딸자식들도 교단에 세웠 다. 그리하여 교육자가정이 된 그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 국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량 심을 바쳐가는 애국자가정 이라고. 찾아온 보람이 있다 고 말씀하시며 교육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 주실 때 우리 집식구들은 북 받쳐오르는 감격을 금할수

말끝을 흐리는 어머니의 손 원수님께서 우리 가정이 올린 맹세의 편지를 보시고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시였다고 하면 서 이 사랑의 집에서 만사람 의 축복을 받으며 뜻깊은 결 혼식이 진행되고 《세계명작동 화집》의 독자들이 태여났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당의 사 랑과 믿음속에 아버지가 지난 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 창을 수여받던 일,올해에 있 은 제 1 3차 전국교육일군대

겨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정녕 교육자가정의 경사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 마 음은 하늘같고 해야 할 일은 많고많은데 이렇듯 뜻깊은 1 0월을 맞이하고 보니 사랑 에 사랑만을 더해주는 우리 당의 고마움이 더더욱 사무쳐 온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 여앉아 어머니당의 노래를 부 른다는 심동수동무의 절절한 토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

게 울려주었다. 이것이 어찌 심동수동무의 심정뿐이겠는가.

잘나고 못난 자식 따로 없 이 천만자식모두를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이끌 어주며 값높은 삶을 안겨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칭송의 목소 리가 창전거리의 살림집들뿐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 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북변의 광산들과 수 천척지하막장, 바다멀리 이름 국땅 곳곳에서 끝없이 울려퍼

지고있는것이 아닌가. 1 0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는 고마움의 노래소 리, 그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긍지 와 자부심이며 어머니 우리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하려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신념의 분출이다. 우리는 위대한 당이 있어 우 리 인민이 꿈꾸는 천만복이 꼭 현실로 펼쳐지리라는 확신을 안 고 심동수동무의 집을 나섰다.

본사기자 리건일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

품은 바로 당입니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뜻깊은 1 0월은 나로 하여금 고마운 당과 조국의 품속에서 다시 태 여난 못 잊을 추억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한다.

우리 부모들은 해방 전에 살길을 찾아 현해 탄을 건넜다. 아버지는 우리 자식

그러던 아버지가 류달리 환 한 얼굴로 집에 들어선것은 1960년 어느날이였다.

는 교육도 무료교육,병치료 도 무상치료라더라.》 버지가 하는 꿈같은 이야기가

《조국으로 가자.그곳에서

그때 14살이였던 나는 아 잘 믿어지지 않았다.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인가. 그 주고 학교문을 열어주고 뜨거 렇게 좋은 나라가 나의 조국

들의 입에 풀칠이나마 해주기 진 훌륭한 살림집을 무상으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 로 안겨주었고 다정한 이웃 들은 그 차디찬 이국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 가고 하면서 따스한 정을

부어주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 누는 말속에는 자주 당이라는 말이 올랐다.

당. 아직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으나 우리에게 집을 운 사랑과 정을 안겨준 고마 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않을수 없었다. 하면서 내 생각을 적극 지지 해주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미용사가 되였다. 그때로부터 근 50년간 나

는 변함없이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

이 나날 내가 더욱 깊이 깨 달은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인 민을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들

라에서는 미용사들도 사람들 고마와하는것을 보고 놀라지 응당 할 일을 하는데도 불구

라고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있

하고 사람들은 훌륭한 미용사 그후 나는 높은 국가수훈 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리고

귀국한지 20여년이 되던 해에는 공훈리발사칭호를 받 았으며 그 다음해에는 평양 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

적인 안목으로 보고 대하게 되였다.

지금 나의 가슴속에는 당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당이 안

행복을 주고 미래를 준다. 중구역편의봉사사업소 대통교미용원 김 만 선

# 삼형제실농군분조장

위 대 한 령 도 자 이란것이 정말로 기쁘고 자랑

스러웠다.

전천군 읍남새전문협동 흙채와 영양단지찍는기 없는 자그마한 섬마을 등 조 농장 제 3 작업반 2 분조장 계, 소달구지와 물초롱 등 량래성, 제 1 작업반 4 분조 장 량태영,제 1 작업반 1 분조장 량래일동무들은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는 삼형제실농군분조장으로 소

문이 났다.

이들은 매 영농광정마다에 서 실천행동으로 분조원들을 깨우치고 이끌고있다.올해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때에도 이들 삼형제분조장들은 닭이 홰를 치기 전부터 일터에 나 가 분조원들을 혁신에로 고 무추동하였으며 저녁에는 제 일 늦게 집으로 돌아오군 하 · 였다.

1 0여종의 소농기구들을 미 리미리 장만하여 분조들이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 를 제철에 남먼저 끝내도록 하였다.

선진영농방법과 과학기술을 터득하고 실천에 구현하는데서 도 이들 삼형제분조장들을 누

구도 따를수 없다. 심이 강한 삼형제분조장들이 니 모든 영농과업수행에서 앞 서나갈수밖에 없다고 일군들 과 농장원들은 입을 모아 칭 찬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경북



이렇게 일욕심이 많고 탐구



전력증산투쟁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결사관철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형봉탄광에서-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생일상이 개성시 역전동 59인민반에 살고있는 백살장 수자 리혜경할머니에게 전달되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이 넘쳐흐르는 뜻깊은 10월에 백번 째 생일을 맞는 할머니는 평범 한 로인을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부총령사가, 상대측에서 하바롭스

크변강정부 1부수상 등 해당 판

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진행되였다.

해방전 소작농의 딸로 태여나 온 고있다. 갖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나라의

을 누리게 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힘껏 일해 온 할머니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 도 일손을 놓지 않고 나라에 보탬

주인,땅의 주인이 되여 참된 삶

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할머니는 남새와 콩음식을 좋

그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사회 주의제도가 좋아 세월이 가도 장 수하고있다고 하면서 고마운 조

당부하고있다. 장수자로인의 가족, 친척들은

국을 위해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 아하며 늘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 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우리 나라 외무상과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행정장관 회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

선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

전시킬데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 과 뱌체슬라브 슈뽀르뜨 로씨야 련방 하바롭스크변강행정장관의 회담이 7일 변강정부초대소에서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은 슬라바광장에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 있는 영웅기념비에 꽃다발을 진 행과 나호드까주재 우리 나라 총 정하고 향토박물관 등을 참관하 령사, 하바롭스크주재 우리 나라 였으며 하바롭스크변강정부에서

> 마련한 연회에 초대되였다. 이에 앞서 모스크바체류기간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 정하고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 를 돌아보았다. 또한 모스크바 뽀클론나야산에 있는 위대한 조국전쟁중앙박물관

외무상과 일행은 크레믈리성벽곁

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판하였다. 한편 외무상과 일행은 올레그 꼬줴먀꼬 로씨야련방 아무르주 장관을 만나 담화를 하였으며 부 레야수력발전소, 국영농장, 우유 가공회사 등을 돌아보았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 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 【조선중앙통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타산하여

# 뜨락을 야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 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 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라나고있습니다. »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은 지 난 2년동안 백암군 덕포지구 에 달려나가 뜨거운 정성과 헌 신으로 근 8천명 주민들에 대 한 검진 및 치료를 진행하였을 뿐아니라 수백명 아기들의 출 생을 어머니심정으로 지켜주어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다.

온 나라 녀성들속에서 우 리 친정집으로 다정히 불리 우는 평양산원의 의료일군 들은 올해에도 또다시 수도 로부터 멀리 떨어진 백암땅 에서의 현장치료를 전투적 으로 진행하였다.

열흘동안의 비상전투 지난 6월 어느날 평양산원 일군들의 진지한 협의끝에 백 암군 덕포지구에서 현장치료를

하게 될 의료일군들이 정식 선

정되였다.

열흘후면 평양을 떠나야 하 는 그들은 격식없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동무들, 오늘부터 전투를 선포합니다. 현지에서의 있을

소아과, 내과, 외과 등의 전과 적인 진단과 치료방법들을 하 나라도 더 습득합시다.》

백암땅주민들에 대한 현장치료 를 원만히 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4 산과 부과장 림영 일동무의 목소리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낮과 밤을

때로는 전문병원의 의료일군 들을 찾아가 림상실천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을 놓고 진지한 이 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나서는 높 은 기술을 련마하느라 시간이

평양을 떠나 머나먼 곳에서 것이 그 얼마나 많았으라.

마지막 한세대까지

지난 6월말 평양산원의 현장치료대원들은 여러가지 의료기구들과 진단설비,의 약품들을 차에 싣고 현지에 도착하였다.

머나먼 려행길에서의 피로

그것은 덕포지구의 사람들이

고를 헤아려 의료일군들이 류

백 두 대 지 에

료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불같은 마음을 안고 평 양산원의 현장치료대원들은 두 개 조로 나뉘여 덕포지구의 여 러 농장들을 찾아 달리며 긴장 한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그 나날 7산과 의사 최광 웅, 9산과 의사 서금주, 2산 과 간호원 리혜숙, 1 산과 조산 원 강영미동무들은 사경에 처 한 산모들과 아기들의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10여명 의 녀성들에게 어머니된 기쁨

의사 김광섭, 간호원 윤경진동 무들은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였다. 왕진을 요청하는 어느 한 피우고있다.

터치였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

평양산원 현장치료대원들 이 백암군 덕포지구를 떠난 지도 어느덧 많은 시일이 흘 렀다. 하지만 오늘도 이곳 주 민들은 뜨거운 추억을 안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어찌 쉽게 잊을수가 있으라. 백암땅의 수천명 녀성들만 이 아닌 그들의 남편들과 부모 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친 혈육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었 다는 현장치료대원들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들이며 의료 봉사활동의 짬시간마다 휴식 을 미루고 여러 단위 의료일군 들에 대한 기술전습을 스스로 맡아나서 성심성의껏 하여주 었다는 감동깊은 이야기들, 이 동치료를 나가던 길에 애기어 머니들과 늙은이들이 눈에 띄 면 차를 세워 목적지까지 친절 히 태워다주군 한 운전사 송충 성동무를 비롯한 평양산원 현 장치료대원들의 인상깊은 그

들을수록 깊은 감동을 자아 내는 이야기들은 평범한 사람 들 누구나가 가정과 일터마다 에서 의료일군들의 검진과 치 료를 받으며 살며 일하는 시대

# 에 짚 트 대 사 관 무 관 군대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군대절에 즈음하여 왈리드 엘

싸예드 모함마드 아흐마드 주조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무관이 8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장령, 군 판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 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무관 들이 초대되였다.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 아흐마

드 에짚트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사,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 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아 브둘 파타흐 알 씨씨대통령각 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에짚트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령 도 자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과부문의 지식만으로써는

> 이어가며 해당 전문부문의 림상 실기를 터득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 > 언제 가는지 몰랐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현장치료 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관심하고 해결해야 할

하지만 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그때부터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의 열흘동안에 그들은 백암땅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로 비상전투를 벌리 였던것이다.

료 의 를 풀기도 전인 그날 저녁 그 들은 해당 지역 병원의 의료 일군들로부터 한가지 청을 받 게 되였다.

숙하는 현지에 찾아와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는것이였다. 에도 멀리 떨어져있는 덕포지 구의 여러 농장 주민들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하느라 수고할 의료일군들을 념려해주는 인 민들의 마음이 고맙게 생각되

(힘은 들어도 우리가 덕포지 구의 농장들을 찾아다니며 치

였지만 그들은 도리머리를 저

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1부인과 의사 한태 훈, 유선종양연구소 유선1과 의사 강영근동무들은 친혈육 주는 어머니당의 그 은정에 더

의 정으로 수천명 녀성들에 대 높은 감자생산성과로 보답하 한 검진 및 치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마취수술과

바쳐 산과, 부인과질병치료를 평양산원 현장치료대원들의 수 위한 어렵고도 힘든 수십건의 수술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

해마다 그러하였듯이 올해 농장마을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급히 잠자리에서 일어 나 준비를 서두르고있던 그때 또 다른 농장마을에서 전화가 걸려와 조직사업을 다시 하기 를 그 몇번,그렇게 밤을 밝 히며 여러 농장마을에 달려갔 다오고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일정계획에 따르는 의료봉사 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가 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덕포

지구의 주민들은 뜨거운 눈물

을 흘리며 격정의 목소리를

어져있지만 우리도 평양산원 의 넓은 집뜨락에 안겨삽니 다.》,《본인들조차 모르고 지 내던 유선암을 조기적발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평양에서 입원치료까지 받도록 해주니 진정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 제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 다.》,《우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해마다 머나먼 이곳에까 의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의 귀 지 유능한 의료일군들을 보내

겠습니다.》

이어놓고

모습들…

전에 들려왔다.

본사기자 방경 찬

# 혁명적당건설사에 쌓아올리신 위대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6 9년이 되여온다. 7 0년을 가까 이하는 이 자랑찬 나날 우리 당은 로숙하고 세련된 사회주의집권당 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높고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 되여왔다.

우리 당이 력사의 온갖 시련과 풍 파를 이겨내며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뗠 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 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세 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선로 동당을 명실공히 수령님의 당으 로, 선군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불 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

시였습니다. 》 당건설과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는 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 나 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1990년대 혁명적당건설의 지 침을 옳바로 밝히는것은 당시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실태와 판련하여 더 욱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이 시기로 말하면 여러 나라들에 서 사회주의가 좌절을 겪음으로써 세 계사회주의위업이 심각한 위기의 소 용돌이속에 말려들던 때였다. 제국주 의자들은 당시 조성된 사태를 두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해 요란스럽 게 떠들면서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혁명적당들이 당 건설과 활동을 잘해나가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해나갈수 없

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책임질수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 8 1 (1 9 9 2 ) 년 1 0 월 위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천리혜안 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조성된 정세와 시대의 요 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혁명적당건 설의 강령적지침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옳바른 당건설지침을 가지지 못하여 고충을 겪고있던 세계 진보적인 당들과 인 민들에게 있어서 투쟁의 기치, 승리 의 보검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 에서 혁명적당들이 평양선언을 공 동의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사회 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는 때 에 당건설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옳게 총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집권당건설의 력사적교훈을 밝히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 주의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 수하고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당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 에 대하여》는 세계 혁명적당들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옳바 른 지도사상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문제, 당을 근로하는 인민들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문제,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일단결을 강화하며 사상을 기본으 로 하여 당을 꾸릴데 대한 문제와 그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한 불멸의 대강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사상 리론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은 비상히 높아지고 조선로동당의 존 엄과 권위는 온 세상에 힘있게 과 시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혁명 적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문제 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준 백 과전서적인 강령적지침을 받아안 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운동을 재건 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 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 어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며 혁명적당을 건설하고 강 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

게 밝혀주시였다. 이때를 회상하여 외국의 한 인사 는 《김정일동지와 붉은 당기》라는 제 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 언〉이 19세기 공산주의자들의 신 념의 등불이였다면 사회주의와 당 에 관한 사상을 새로운 과학적토대 우에서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와 당에 관 한 5대명저는 인류사상사에 특기 할 저서들로서 20세기는 물론 2 1세기의 모든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의 사회주의 신념의 홰불이고 당사업의 기치라 고 나는 감히 말하고싶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장군님 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정치적혼란의 미 궁속에 헤매이던 세계의 수많은 진 보적당들의 운명을 위기에서 건져주 신 위대한 은인이시라고 하면서 조 선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통일단

결될 때 당이 위력하고 불쾌하며 혁

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한다는 진리를

새겨준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우리 당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고 히 틀어쥐고나가심으로써 복잡다단 한 국제정세속에서 혁명적당들이 자기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갈수 있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 시였다.

지난 세기말 일부 나라들에서 사 회주의가 붕괴된것을 기화로 미제는 세계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동원하여 사회주의보루인 주체조선을 압살하 기 위하여 미친듯이 발광하였지만 우 리 당의 선군정치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제는 우 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해보려고 전 레없는 전쟁도발과 위협공갈책동을 벌렸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 미싸일발사》로 오도하면서 요격하겠 다고 기승을 부렸는가 하면 조선반 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등 별의별 악랄한짓을 다 감행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또한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적포위환을 형성하 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책동들은 우리 당 의 선군정치앞에서 산산쪼각이 나고 말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선군정

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 도를 굳건히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 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성부흥의 길 로 힘차게 전진하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기 위한 시대 적흐름이 날로 거세여지고있다. 수 많은 선군사상연구조직들이 출현하 였다. 제국주의아성인 미국에서까 지 선군사상연구조직이 출현한것은 선군정치의 감화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 카는 물론 유럽나라들에서도 선군 정치에 관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 고있다.

오늘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mark>은동</mark>지에 의하여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나가도 록 하신것은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 전시켜나가는데서 거대한 력사적의 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세대를 이 어 주체의 당기를 높이 날리며 전진 해가는 조선로동당의 모습에서 승 승장구할 선군조선의 래일을 그려 보고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특출한 령도풍모를 천품으 로 지니신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 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영원불 멸할것이다.

주 세 명

# 백전백승의 강위력한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먄마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굔지역위

원회 비서대리 민 테인은 3일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당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과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충 심으로 되는 인사를 보낸다.

1945년 10월 10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 하신것은 조선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며 그때로부터 주석과 김정일각하 그리고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적들 의 압살책동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 히 수호하시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인 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고계신다.

담 화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반드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9월 25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 시키신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자 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오늘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조선로동 당을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 키시고 조선인민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 끌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축원을 드리며 아울 러 최후승리를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 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지지 와 런대성을 보낸다.

# 잡 지 뎨 10 40 우

9월호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잡지는 《조선-시종일관 안정》이라 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본 사 상급기자의 다음과 같은 글을 게 재하였다.

나는 조선에 몹시 가보고싶었다. 비행기창밖으로 이 나라를 내려다보 는 순간 나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였다고 해도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권은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

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말레이시아잡지 《레져 트래블》 조선의 수많은 비밀들을 밝혀내지 못 하고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나름 대로 추측할뿐이다.

> 그래서 가보라, 가보면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말이 있는것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동상 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은 조선혁명 의 력사, 애국주의, 수령에 대한 신뢰 심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일떠섰는가 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다.

잡지는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사진들도 함께 편집하였다.

되고있다.

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로동의 참된

로동에 의한 보수와 함께 국

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이라는

보수형태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

주인, 로동의 결과의 향유자로

#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의 통 오스트리아사이의 40돐 기념행사 교관계설정

Н

우리 나라와 오스트리아사이 의 외교관계설정 40돐기념 조선우표전시회와 합동공연이 2일 윈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

우표는 1 9세기 전반기에 영 국에서 낡은 우편제도를 개혁하 기 위한 과정에 발생하였다. 우표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지금과는 달리 편지를 받는 사 람이 우편료금을 통신원에게 물 었다.

당시 사람들은 우편료금을 지불 할 돈이 없으면 편지를 받을수

기로 하였다.

없었다. 우편제 도의 개혁에 관한 론문을 쓴 영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만국우 나라는 수많은 종류의 우표들을 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로렌드 편대회에서 기구가 창설된 날 힐에 의하여 우편료금선납제를 인 1 0월 9일을 《세계우표의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 다.하여 1840년 5월 1일 에 우편료금선납증서로서 빅토 리아녀왕의 초상을 인쇄한 우표 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발

리, 풍속 등을 소개하는 우표들 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에는 오스트리아 련방경 제회의소 부소장과 외무성, 오 스트리아공산당 윈시 21구역위 원회, 오스트리아로조런맹 좌익

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

쁠럭,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인사

장하며 그것을 통일적으로 발 전시킬것을 목적으로 1874 년 10월 9일 스위스 베른에 서 22개국 전권대표들이 조

회 또는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을 조직하고있 으며 해당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원들에게 상금을 수여하기 도 한다.

들이 참가하였다.

약을 체결함으로써 만국우편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이 해방 동맹의 전신인 우편총동맹이 창설되였다. 그후 1969년

된 후부터 진정한 인민적우표들 발행되였다. 오늘 조선우표 는 국제적으로 권

나라 류학생들과 오스트리아예

【조선중앙통신】

위있는 우표로 그

술인들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이름이 높다. 우리 발행하여 지난 시기 국제우표시 장들과 경기들에서 특별권위상 을 받는 등의 성과들을 이룩하 였다.

우리 나라는 1974년 5월 29일 기구에 가입하였다. 오늘은 《세계우표의 날》

# 근대우편제도의 발전과 나 여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 라들간의 국제우편통신을 보 기 위하여 우표전시회나 토론 본사기자 로씨이대통령 제재가 경제발전의 촉진제로 된다고 언명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 언명하였다. 그는 대로씨야제재

움직임은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제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가 9월 17일 한 모임에서 우리 공화국의 민주주 의적인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 도를 찬양하였다.

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 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성원 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 \_ 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윈에서 공부하는 우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는 모든 공민들이 성별,민족 별,직업,재산과 지식정도,당 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 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

뎅구열방지사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마두로 모로스가 9월 28일 전국

의 모든 주민들이 뎅구열방지사

그는 정부가 뎅구열을 방지하

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하고 해당 부문 관리들을 피해

지역들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는데 대해 언

급하였다. 그는 뎅구열방지사업

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병의 근원인 모기서식지들을 찾

아내여 없애버리기 위한 활동에

전체 인민이 동원되여야 한다고

레로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 제 리 공 화 국 의 물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어디 롯한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행사하고있다.

조선에는 중앙과 지방의 출 판기판들과 공장,기업소,대 학들에서 발행되는 수많은 신 문. 잡지들이 있으며 여러개 의 텔레비죤통로와 방송들이

있다.

동을 취하는것은 지역에서 불안정

아랍추장국련방과 요르단이

3일 환경보호를 위한 깨끗한 에

네르기개발사업에서 서로 협력

을 초래할뿐이라고 강조하였다.

협

발권을

조

또한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 유를 보장받고있다.

위하여

이라고 밝혔다.

힘을 넣고있다.

다고 밝혔다.

업에 힘을 넣고있다.

에서나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는 권리를

조선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그는 자기 나라가 평화적목적

의 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할것

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동

안 국가적투자를 아끼지 않을것

마약반대투쟁

레바논에서 마약반대투쟁에

2일 이 나라 세관당국은 가구

안에 마약을 숨겨 밀수행위를

일삼던 범죄집단을 적발하고

95만알이상의 마약을 압수하였

코끼리보호노력

탄자니아에서 코끼리보호사

모든 공민들은 각종 출판보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비

하였다.

인민의 정권이다. 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 로 보장받고있는 사회가 바로 조선에서는 신앙의 권리도 법 적으로 담보되고있다.

살

마두로 모로스가 3일 암살행위

를 조작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

1일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의

조선사회이다.

규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대해 언급하고 그는 살인범들은 바로 미행정부의 재정적지원을 받는 반동단체의 성원들이라고 까밝혔다. 정부는 살인자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할것이라고 그

원에 대한 암살행위가 감행된데 는 강조하였다.

부 당 한 서 사 비 난 이란외무성 부상이 1일 이르 기 위한것으로서 국제법에 완

나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부 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미국무성 대변인이라는자 가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무 기제공이 유엔안보리사회 결 전히 부합되는것이라고 말하 였다.

미국은 테로분자들을 소탕하 기 위해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 하려는 중동지역 나라들의 노력 의에 위반된다고 뗘벌인것과 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레바논 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해 위구심만을 더해준다고 경고 어떤 조치도 인정하지 않을것이

# 찐이 최근 한 회의에서 연설하 는 로씨야뿐아니라 세계경제에 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 면서 외세의 대로씨야제재가 선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제재로 하 가며 경제의 선행부문들을 발전 행부문들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 여 조건은 어려워졌지만 로씨야 시키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는 보충적인 촉진제로 되였다고 는 보다 유익한 결심을 내리게

날》로 명명하고 해마다 기념하

이날을 맞으며 기구는 사람

전에서 우편분야의 역할과 기

【조선중앙통신】

시사해주는가

강조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3 일 한 전화대화에서 테로와의 투 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역나라들이 호상 협조 하여 테로분자들에 의한 류혈적 인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

모든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그 <sup>1</sup> 는 그러한 존중이 없이 그 어떤 행

해나갈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 하였다. 이에 앞서 2일 에티오피아와 우루과이는 상업, 금융, 공업, 농

업. 과학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로씨야와 슬로벤스꼬가 2일 가스수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이에 따라 로씨야는 앞으로 5

년동안 매일 200만m³의 가스를 슬로벤스꼬에 수출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9월 30일 뻬루 와 꼴롬비아는 두 나라사이의 국경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다 그치기 위한 11건의 협조문건에

조인하였다. 핵에네르기개발을 주장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 스가 2일 핵에네르기개발사업 을 추진시킬 정부의 립장을 표

명하였다.

팔레스티나

와 이스라엘

# 2일 정부는 밀렵자들에 대한 단속통제사업을 강화한 결과 아 프리카에서 가장 큰 동물보호구 의 하나인 쎌로스동물보호구에

서 최근 3개월동안에 코끼리밀 렵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 혔다. 정부는 앞으로 코끼리밀 협행위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 게 벌릴 립장을 강조하였다. 쎌로스동물보호구에서는

1982년이래 밀렵자들에 의해 코끼리와 서우마리수가 거의 90% 줄어들었다고 한다.

# 국 에 서 반 전 집 회

역행하는 무분별한 령토강탈야망 자기의 공약을

# 미국이 우크라이나사태의 책 임을 로씨야에 넘겨씌우면서 이 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완전히 제압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선코를 뗴고 여러 나 라들이 대로씨야제재에 뛰여들 었다. 금융과 에네르기. 군수부 문에 대한 제재에 이어 보다 강 도높은 추가제재조치들이 취해 졌지만 로씨야의 응당한 반발과 강한 보복으로 대로씨야제재는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이런 속에서 최근 에짚트가 로씨야로부터 35억US\$어치의 각종 무장장비를 구입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에짚트가 군사기술 분야에서 로씨야와의 협조를 확 대하려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로씨야대통령 뿌찐이 로씨야ㅡ 에짚트최고위급회담후에 밝힌 바 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에짚트가 미국주도의 대로씨야제재소동 이 일고있는 현시점에서 로씨야 와의 관계강화에 나서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최근년간 북아프리카와 중동 을 휩쓴 《아랍의 봄》은 이 지역 들에서 파국적후과를 초래하였 다. 사회적불안정과 정치적혼

란, 무질서가 조성되였다. 분파 간, 종족간 충돌이 잦아지고 그 것이 내란으로 번져졌다.

《아랍의 봄》은 미국식《민주주

의》를 내리먹일 목적으로 미국

이 주도하여 일으킨 《색갈혁명》

이다. 에짚트 역시 《아랍의 봄》으로 에서 들여오고있다고 밝혔다. 하여 타격을 받았다. 에짚트인들은 미국식《민주주 의》가 자기 나라에 번영과 발전 은커녕 막대한 손실만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있으며 심각한 교 훈을 찾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대로씨야제재에 추종하고있는 때에 에짚트가 그 에 도전하여 로씨야와의 관계강

화에 나서고있는것은 바로 이때

문이다. 에짚트대통령은 나라의 미래 를 위해 허리띠를 조이고 희생 도 각오할것을 호소하면서 나 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대 한 국가경제계획을 세우는 등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립장을 취하고

대외정책에서 특히 군사분

있다.

야에서 로씨야와의 긴밀한 협 조강화에 나서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에짚

무엇을

트는 로씨야와의 경제 및 농업 협조뿐아니라 군사협조도 더욱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 가 무장장비의 대부분을 로씨야 에짚트는 로씨야에서 반항공 방어체계와 군용직승기, 전투기

«МиГ−29», 반땅크종합체 들을 구입하려 하고있다.이외 에도 《M μ Γ — 3 5 》와 반항공 미싸일종합체 《C-300》,  $(C-4\ 0\ 0)$ ,  $(B\ y\ K-M\ 2)$ Э», 《Top-M2Э》 그리고 636형디젤전기잠수함에도 대로 하여 경제적명맥까지 장악

관심을 보이고있다. 에짚트가 로씨야와의 군사적 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협조를 강화하는데는 그럴만 한 리유가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저들의 무기에 전 적으로 얽매이고 의존하도록 하 는 한편 가혹한 부대조건을 붙 이고있다. 저들의 무기를 수입 하는 나라들에 군사기지제공과 령공통과권, 항구리용권 등과 같은 군사적특혜를 요구하고있 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라의 령토를 통채로 미국의 군사적통제밑에 밀어넣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

산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무기 자체만이 아니라 관련기술,부 속품 등도 미국의것을 사들여야 하며 지어 그 무기성능에 따르 는 전술, 전법까지도 고스란히 받아물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렇 게 되면 해당 나라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이것을 노 리고있다.

무기수입국들을 군사적으로 틀어쥐고 나아가서 그것을 지레 하고 저들의 예속국으로 만들자 바로 이로부터 에짚트는 로씨

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대외정 책을 실시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미국을 비롯한 지배주 의세력의 강권과 전횡,내정간 섭책동이 배척을 받고있다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자기의 처지와 현 국 제관계발전추세를 랭정하게 돌 이켜보아야 한다. 김 철 룡

# 대세에 사이의 문제 를 해결하<del>는</del>것은 오늘 중동지역 정세를 완화하는데서 중요하고

도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 다. 이로부터 국제사회는 이 문 보여주고있다. 제해결을 위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중동평화를 바라는척 하면서 뒤 에 돌아앉아서는 자기의 음흉한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 다. 그리하여 중동평화과정은 암담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도리여 악화되는 결과를 빚 어내고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비렬한 령토강탈야망과 주요하게 관련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일 이 스라엘은 동부꾸드스에 유태인 정착촌을 건설한다는 그 무슨 계획을 다시금 발표하였다.이 스라엘의 한 관리는 성명을 발 표하여 동부꾸드스의 한 지역에 2 5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 을 승인하는 지시문에 수표하였 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러 한 행위는 중동평화를 위해 노 력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 다. 또한 팔레스티나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이스라 엘의 최종공약이라는것도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간주하고있는 곳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계가 다 인정하고있 다.이스라엘도 이것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강 도들은 동부꾸드스의 한 부분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유태인정 착촌건설을 계속 확대하고있 다. 이로부터 세계 많은 나라들 이 이스라엘이 강행하고있는 동 부꾸드스에서의 정착촌확장책 동을 비법적인것으로 락인하고 강하게 반대해나서고있다. 오죽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자라고 하는 미국도 이에 대해 겉으로나마 반대해나서고

있겠는가. 문제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정 착촌건설계획과 관련한 성명이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회담하고있는 때에 발표되였다는데 있다. 이로 하여 중동평화의 중재자로 자처 하던 미국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

어지고말았다. 성명발표후 미백 구를 따를것을 강조하였다. 악관 대변인이 이러한 사태발전 동부꾸드스지역은 팔레스티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추구하겠 나인들이 자기 나라의 수도로

> 나발에 불과한것으로서 미국의 량면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상전의 속심을 간파한 이스라 엘은 령토팽창책동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리며 자기의 야망을 버

다는 이스라엘의 최종공약에 대

해나섰다. 하지만 이것은 행차뒤

리지 않고있다. 최근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 안지역에서 정착촌건설에 리용 되는 4km²의 토지가 저들의 《국 가령토》로 될것이며 정부는 그 것을 새 이스라엘공동체로 인정 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이것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중동 은 정착촌건설을 더욱 확대하려 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된다, 유엔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 한바와 같이 정착촌건설은 국제 법에 저촉되는 비법적인 행동이 다라고 락인하였다. 그러면서 이 스라엘이 정착촌건설을 중지하고 국제법과 4자로정도에서 지닌

유럽동맹도 요르단강서안지 은 국제공동체의 규탄만을 자아 역의 일부 토지를 자기들의 령 낼것이다, 팔레스티나인들과의 토로 선언한 이스라엘의 처사를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1967

년이전의 국경들을 변경하는 그

라는것을 재천명하였다.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새 정 착촌건설계획취소를 강하게 요 구하면서 이러한 계획이 중동 평화과정에 위험으로 된다고 까밝혔다.

이스라엘의 무모한 령토강탈 책동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팔레 스티나와 아랍나라들은 물론 세 계 여러 나라들에서 강하게 울 려나오고있다. 현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

나지역에서 파렴치한 령토강탈 지역에서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 해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의

평화를 바라는 아랍나라들과 세 계 많은 나라들의 지향에 역행 하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신경섭

¬-411575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외조 → 사회조의교양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